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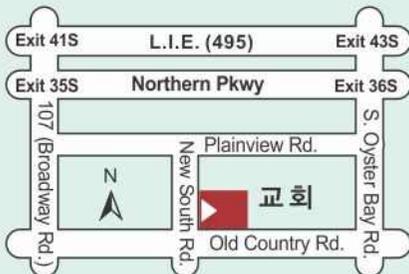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 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주일예배순서

제29권 50호 주후 2021년 12월 12일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대강절Ⅲ

예배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Confession	다 같이		
찬송 Hymn	433장, 120장		
기도 Prayer	최훈집사	김용호장로	유학준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미(Micha)6:6-8		
찬양 Anthem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Sermon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김중훈목사		
찬송 Hymn	630장		
봉헌 Offering	다 같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찬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한규만집사	2부 김두성장로	3부 정수영장로
방송설교	KRB FM 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기쁨의 성탄절과 은혜 충만한 연말연시를 위해

지난주일 설교요약

본문: 눅(Luke)7:36-50

제목: 예배가 예배되게

지난 주일에는 말라기서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의 줄거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때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동네의 죄를 지은 여인(창녀)이라고 알려진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서서 울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그런 행동을 말렸어야 하는데 아무 거부 반응도 없는 것을 보고 속으로 탐탁찮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값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연히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옳다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손님 접대에 기본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빠른 사람입니다. 종교화된 사람, 껍데기 신자, 혹은 의식화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여인의 모습을 봅시다.

1. 거룩한 갈망(굶주림)이 있는 예배자

죄 용서의 감사와 감격에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 남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멸시를 당할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왔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수모보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2. 옥합을 깨뜨리는 감사가 있는 예배자

예배의 뿌리는 평생 값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과 경배, 헌금, 봉사, 전도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예배가 참 좋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설교, 찬양, 예배 분위기를 두고 말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참 다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거기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예배의 부흥을 꿈꾸는 예배자

부흥은 교인 숫자가 늘고 재정적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향유 옥합을 깨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은 에스겔 47장처럼 성전에서 흘러 나와 가정을 적시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가정과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결론]

하나님은 예배에서 2등 취급을 받지 원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까지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데이트할 여자 친구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지를 끼워줄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부와 함께 어린양 혼인 잔치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금년 성탄을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장이야기

예뻐목장

안녕하세요! 예뻐목장입니다. 저희 목장에서 그동안 함께 기도하던 김종안 & 양순희 집사님 가정에 주신 기도응답을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지낸 2년은 나와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금식, 여러 번의 시도에도 끊지 못했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고통 없이 끊게 하시고 팬데믹 속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희가정에게 하나님은 많은 분들을 통해 사랑을 주셨습니다. 렌트비를 제 날짜에 낼 수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음식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아들이 21살이 되어서 21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기뻐했지만 기쁨도 잠시 서류준비부터 쉽지 않았는데, 접수 직전에 스폰서를 바꿔야한다는 변호사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접수시킨 서류는 목장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접수된 지 6개월만인 추수감사주일 전날 토요일에 영주권 카드가 도착해서 감사사가 넘치는 기쁜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찬양예배

온라인 예배 가이드

- *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던 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 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 2. 예배 전에 씻고 아침을 먹는다. 식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 3. 교회 갈 때처럼 예배에 적절한 옷으로 같이입는다. 옷을 대충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 4. 십일조 및 헌금을 준비한다.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우편봉투에 넣어 예배시간에 드린다. Venmo를 사용하는 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헌금시간에 맞추어 헌금한다. 주중에 교회에 들어서서 헌금하실 분들은 부목사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다.
- 5. 예배시간(2부 9시 30분, 3부 11시)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한다.
<http://www.yalechurch.org/live-stream-sermon/>
- 6. 동시통역: 3부 예배(11시)에 동시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We provi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sermon in English (11am service).
Join Zoom Meeting: Meeting ID: 871 2789 7718 Passcode: 1234
<https://us02web.zoom.us/j/87127897718?pwd=dTFkMG1XN3E2MnBkUTMyUUJFdTBsZz09>
- 7. 다음을 숙지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 a. 발을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예배당에서처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 b. 아이들은 부모 옆에 앉고,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녀들에게 참용성 있게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 c. 설교 및 찬양 시간에 서로 질문하는 것이나 잡담은 피한다.
 - d.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동일하게 일어나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 e.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여한다.
 - f. 예배 후에 주어지는 적용질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12월 15일
기 도	최양미권사
말 씬	김종훈목사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씬	김종훈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12월 19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한규만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김두성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정수영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12월 22일 수요기도	양명옥권사	예배부

교회소식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2.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정결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3.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요일예배: 요한2서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만,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① 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 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 수요일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담임목사 동정: CTS 뉴욕방송 후원이사회 이사장 취임(12/8)

3. 성탄절 축하예배 안내: 12월 25일 오전 11시(현장예배 & 온라인예배)

*유아세례, 찬양대 성탄축하찬양, 절기헌금(\$35,000)

4. 선교회 총회 안내: 오늘 3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함께 예배 후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별 총회 장소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5. 선교회 신&구입원 초찬기도회: 12/18(토) 오전 6시 30분, 친교실

6. 마을지기, 목자, 총무의 밤: 12/14(화) 오후 8시 부부동반, 친교실

7. 목장예배 안내: 12/17(금) 오후 8시 30분, 각 목장별로

*수요일예배 후 마을지기, 목자, 총무 모임 및 교안배부

8. 안수집사회&권사회 총회: 12/19(주일) 3부 예배 후(임원선출)

9. 2022년 교회 달력 배부: 본당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 유아세례 신청: 성탄절에 유아세례 받으실 가정은 부목사실로 신청서 제출바랍니다(유아세례 나이: 만 4세까지).

11. 바나바 사역부 모임: 오늘 오후 3시 30분 친교실

12.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 단 꽃: 김근태장로&최양미권사(아들 케빈&갈렘 생일), 라용재&유희정집사
- 사랑의식탁: 김근태장로&최양미권사(아들 케빈&갈렘 생일)
- 떡 대 접(선교회 총회 시간에): 도부용집사&도명원권사(아들결혼감사)
김성식집사&오정아집사(아들결혼감사)

교우동정

-입원: 장봉용집사(Good Samaritan Hospital)

행사예고

-12/19	대강절 IV
-12/25	성탄축하예배 (오전 11시)
-12/26	송년주일, 전도/평삼주오 시상, 향촌직 은퇴식
-12/31	송구영신예배 오후 11시

QT본문

요일	일(12)	월(13)	화(14)	수(15)	목(16)	금(17)	토(18)
본문	삿(Judg) 20:29-48	삿(Judg) 21:1-12	삿(Judg) 21:13-25	욥(Joel) 1:1-12	욥(Joel) 1:13-20	욥(Joel) 2:1-17	욥(Joel) 2:18-32

목양 칼럼

2021. 50. 선교회 총회 가이드라인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의 교제(코이노니아)를 위해 씨줄과 날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목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함께 모인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전체로 모이는 예배만 드리면 몸의 유기체적인 하나 됨과 영적 가족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와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마련하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됨과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회와 목장은 예배로부터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실천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성경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랜 세월 길들여진 제도적 교회의 개념이 성경적 교제의 의미를 질식시킵니다. 성경적 교제의 의미를 맞보지 못하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쉽게 탈진하게 되고 목장이나 선교회는 서서히 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침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위험 때문에 목장이나 선교회의 영적교제를 잃어버리면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드는 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게으르기 쉽고 변하기 쉬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신 비전에 있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면 성경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저는 목장이나 선교회를 통해 이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오래전부터 꿈꾸어 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 교제에 적지 않은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 짐으로 인해 넘어지는 자가 되기보다, 함께 짐을 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갈 6:2).

1. 3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모두 함께 모여 선교회 총회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2. 예배 후에 각 선교회는 친교실에서 자녀들의 결혼을 감사하면서 부모님들 가정에서 준비한 소찬을 나눕니다.
3. 식사 후에 각 선교회별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총회를 합니다. 총회는 새로 나누어진 연령대로 모입니다. 사회는 선교회 직전 회장이 합니다. 회장이 없으면 부회장이 사회를 합니다. 직전 회장이 연령으로 인해 위의 선교회로 올라가게 된 경우는 본인만 직전 선교회에 남아 임원선출까지 사회를 하고 새로 정해진 선교회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의 회무는 새로 뽑힌 회장이 진행합니다.